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발전방향 탐색¹⁾

박 일 수(한국교원대학교 강 사)*

박 선 미(KAIST 연구 교수)**

김 경 대(KAIST 연구 교수)

김 훈(KAIST 연구 교수)

이 태 상(상 지 대 학 교 교 수)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발전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과목선 이수제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와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대학과목선 이수제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둘째, 대학과목선 이수제 이수 결과의 대학학점 인정 방안, 셋째, 대학과목선 이수제 중장기적인 발전과제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강 학생 수가 적절히 확보되어야 한다. 한편, 대학과목선 이수제 강의 교수는 고등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강의하되, 추가로 지도할 내용이 있다면 표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둘째,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이수 결과는 각 대학의 학칙에 의하여 학점 인정을 해야 하며, 현행 7단계의 학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제로써, 대학과목선 이수제 교과목 교재 및 평가문항 구축, 사이버 강좌 도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이들을 도입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현 시점에서 이들을 논의하기 보다는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강의 담당 교수와 대학관계자들이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필요성과 목적, 운영 방법, 평가 등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수월성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발전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대학과목선 이수제, 수월성 교육, UP, AP

1) 본 연구는 2008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연구보고 RR 제2008-28-310호)와 2009년 한국과학영재학교(대학과목선 이수제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연구)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smpark@kaist.ac.kr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73년 6월 28일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채택하였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지역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02년 현재 전국 23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신차균, 2007, p. 4).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 입시부담 해소 및 고입 재수생 누적 문제 완화, 고등학교 교육기회 확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고교 평준화 정책은 학력 저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사립 고교의 자율성 약화와 사학발전 저해, 우수 학생의 교육기회 제한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서영인, 2008, p. 235).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면서 그 동안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에 기여한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평준화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김경선·정일환, 2003, p. 388). 교육인적자원부(2004)는 평준화 제도 하에서 학교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하여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 대책(2004. 12. 22)」을 발표하였으며, 2007년부터 ‘대학과목선 이수제(University-level Program; UP)’가 우리나라 정식 교육제도로써 출범하게 되었다(한혜정, 2008, pp. 187-188).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미국의 AP(Advanced Placement), 유럽의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와 유사한 제도이다.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우수 고등학생들에게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대학과목을 미리 수강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대학 진학 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우수 학생들의 능력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우수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 수시 합격자 및 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들의 교육적 공백 방지, 고등학교-대학 교육의 연계체제 강화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강익수·홍후조·성열관, 2006; 박선미, 2007; 최재철, 2007). 이처럼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우수 학생의 수월성 교육의 일환으로서 도입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국가 차원의 질 관리를 위하여 이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 담당할 주관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은 후, 각 대학별로 표준교육과정과 세부운영 방안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2007년 7-8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부터 본 시행을 하고 있다.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2008년부터 본 시행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제기되고 있다(박선미 외, 2008; 2009). 따라서 한국형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발전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과목선 이수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대학과목선 이수제 이수 결과의 학점인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중장기적 발전과제는 무엇인가?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교과목을 직접 강의한 교수 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 및 서면질의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논의한 대학과목선 이수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이 대학별, 교과목별로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운영하는 모든 대학, 모든 교과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할 수 없다.

둘째,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은 대학과목선 이수제 교과목을 직접 강의한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과목선 이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등학생, 고등학교 교사, 시도 교육청 관계자, 대학행정가 및 교육전문가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과목선 이수제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본 연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Ⅱ .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이해

1. AP, IB, UP의 비교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수준의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평가 결과를 대학 입학 후에 대학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 및 고교-대학 간 학습의 연계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AP(Advanced Placement), 유럽의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가 대표적인 대학과목선이수제이다. 이들의 운영 방식과 체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의 교양과정 수준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대학입학 후 대학 이수학점으로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교육목적,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이수 결과의 활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강익수·홍후조·성열관, 2006; 박선미, 2008). 연구자들은 미국의 AP, 유럽의 IB, 한국의 UP를 <표 1>과 같이 비교하였다.

<표 1> 미국의 AP, 유럽의 IB, 한국의 UP 비교

구 분	미국 AP	유럽의 IB	한국의 UP
도입시기	1955년	1968년	2008년
주관기관	• 대학위원회(College Board)	• 대학입학 국제자격 인증기관 (IBO)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목적	• 고등학교 교육의 질 제고 • 교육의 수월성 확보	• 전인적인 인격 • 세계시민으로서의 인간양성	• 교육의 수월성 확보
교육과정	• 개별 과목으로 제공 • 교과 교육과정 형태 • 교과목 이수하지 않고 시험만 칠 수 있음	• 2년간의 고교 교육과정 • 3개 영역(Essay, TOK, CAS) 모두 이수 • 6개 교과군에서 각각 한 개의 선택과목 이수	• 개별 과목으로 제공 • 교과 교육과정 형태 •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대학별 자율 운영
교육방법	• 고등학교 • 홈스쿨 또는 온라인 강좌로 대체가능	• 학교를 매개로 하는 형태로만 제공	• 방학 중에 대학에서 운영
평가방법	• 표준화된 평가(AP Test) • 선다형 문제와 자유 응답형 • 5단계 평가(3점 이상 합격)	• 내부평가 20%+외부평가80% • 다양한 평가방법 활용 • 7단계 평가(4점 이상 합격)	• 과목별 담당교원의 별도 계획에 의해 실시 • 7단계 평가(C0이상 이수)
교육결과 활용	• 대학 입학 후 학점 인정 • 대입 전형시 가산점 제공 • 장학금 제공 • 고등학교 성적 인정	• 대학 입학 후 학점 인정 • 대입전형시 가산점 제공 • 장학금 제공 • 입학 서류	• 대학 입학 후 학점 인정

2. 우리나라 대학과목선이수제의 현황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부터 대학과목선이수제를 본 시행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본 시행 운영 현황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

이,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많으나, 수강 학생 수가 부족하여 폐강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기간 동안 총 51개 대학에서 195개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14개 대학에서 79개 강좌가 운영되어, 40.5%의 강좌만이 운영되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총 수강인원은 1,431명이었으며, 이 중 1,281명이 이수하여 89.5%의 이수율을 나타냈다. 한편 특정 대학과 교과목에 학생 수가 몰려,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다(박선미 외, 2009).

〈표 2〉 대학과목선 이수제 운영 현황

시기	등록기관	대학수	개설 강좌	운영 강좌	폐강 강좌	지원자	수강 인원	이수인원 (이수율)
2008년 1-2월	개설대학	12	56	34	22	681	534	476
	폐강대학	4	10	-	10	-	-	-
	합 계	16	66	34	32	681	534	(89.1%)
2008년 7-8월	개설대학	5	26	17	9	275	174	158
	폐강대학	12	36	-	36	12	-	-
	합 계	17	62	17	45	287	174	(90.8%)
2009년 1-2월	개설대학	10	42	28	14	967	723	647
	폐강대학	8	25	-	25	9	-	-
	합 계	18	67	28	39	976	723	(89.5%)
총합	개설대학	27	124	79	45	1923	1431	1281
	폐강대학	24	71	-	71	21	-	-
	합 계	51(14)	195	79	116	1944	1431	(89.5%)

한편,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운영된 교과목의 현황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강좌가 운영된 교과목은 미적분학 I, 일반화학 I, 일반물리학 I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과목과 II강좌가 거의 개설되거나 운영되지 않았다(박선미 외, 2009).

〈표 3〉 대학과목선 이수제 교과목 운영 현황

시기	미적분 학 I	일반 물리학 I	일반 물리학 실험 I	일반 물리학 II	일반 물리학 실험 II	일반 화학 I	일반 화학 실험 I	일반 화학 II	일반 생물학 I	일반 생물학 실험 I	소 계
2008년 1-2월	11	6	2	-	-	9	2	1	2	1	34
2008년 7-8월	5	2	-	1	1	4	1	-	2	1	17
2009년 1-2월	9	3	1	-	-	7	3	-	3	2	28
총 합	25	11	3	1	1	20	6	1	7	4	79

Ⅲ. 연구 방법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주관 하에 2007년 7-8월 대학과목선이수제가 시범 운영되었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9월까지 대학과목선이수제가 본 시행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7-8월부터 2009년 1-2월 기간 동안에 대학과목선이수제의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들과 2009년 2월 23일에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한편 전문가 협의회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참석하지 못한 교수들에게 서면질의를 실시하였다. 대학과목선이수제 전문가 협의회 대상은 대학교수로 한정된 이유는 대학과목선이수제의 본 시행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각 대학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 대학 및 강의 담당 교수들에게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 전문가 협의회 내용

대학과목선이수제 전문가 협의회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협의회 참여자에게 대학과목선이수제 본시행의 운영 현황과 운영 결과를 소개하는 것이다. 대학과목선이수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들의 경우 타 대학의 상황 또는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의 전반적인 경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대학과목선이수제 본시행의 운영 현황과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각 대학의 우수사례 또는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대학과목선이수제의 확대·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과목선이수제가 운영 초기에 있으므로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정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전문가 협의회 내용

구분	협의 내용
1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대학과목선이수제 학점 인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중장기적 발전과제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과목선이수제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대학과목선이수제의 강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학과목선이수제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운영 및 학점 인정과 관

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중장기적 발전과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전문가 협의회 참여자

대학과목선이수제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의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들과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협의회에 참석하는 교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본 원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과목선이수제 전문가 협의회에는 대학과목선이수제가 운영되고 있는 4개 강좌, 즉 일반화학, 일반물리학, 미적분학, 일반생물학을 강의한 교수가 각각 1명씩 참석한다. 대학과목선이수제는 2006-2007년에 개발된 ‘대학과목선이수제의 기본방향 및 세부지침’과 2007-2008년에 개발된 ‘표준교육과정’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각 강좌별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학과목선이수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 교과목별로 대표자 1명씩을 선정하였다.

둘째, 전문가 협의회에 참여하는 강의 담당 교수들의 소속이 다양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 협의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소속 대학의 중복을 가급적 피하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다양한 대학의 교수들이 전문가 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대학과목선이수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대학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대학과목선이수제 전문가 협의회에 참여 의사 및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과목선이수제를 운영한 교수들에게 E-mail과 유선연락을 통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 전문가 협의회에의 참여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전문가 협의회 참석 대상 기준을 충족한 교수는 6명이었다. 그러나 당일 일정이 어려운 M대학교의 미적분학 강의 담당 교수와 P대학교의 일반물리학 교수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들 2개 대학의 강의 담당 교수들의 자료는 서면 질의를 통하여 확보하였다. 전문가 협의회 및 서면 질의에 참여한 대학 교수는 <표 5>와 같이 6명이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가 협의회 및 서면 질의에 참여한 교수들 중에서 대학과목선이수제의 강의 경험이 3회인 교수가 2명, 2회인 교수가 2명, 4회인 교수와 1회인 교수가 각각 1명이었다.

〈표 5〉 전문가 협의회 및 서면 질의 참여자

참여자	소속	담당 강좌명	UP 교과목 강의 시기				조사 방법	
			2007년 7-8월	2008년 1-2월	2008년 7-8월	2009년 1-2월	전문가 협의회	서면 질의
A 교수	S대학교	일반화학	○	○	○	○	○	
B 교수	S대학교	일반물리학		○	○	○	○	
C 교수	E대학교	미적분학				○	○	
D 교수	Y대학교	일반생물학	○	○	○		○	
E 교수	M대학교	미적분학			○	○		○
F 교수	P대학교	일반물리학			○	○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전문가 협의회 자료와 서면 질의 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는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 자료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전사하였다. 한편 전문가 협의회 참여 의사는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교수들에게 서면 질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일차적으로 협의회 진행 순서에 기초하여, 회의 내용과 서면 질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차적으로는 연구문제에 초점을 두고 회의 내용과 서면 질의 결과를 재분석하면서, 영역별로 약호화하고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결과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3차례에 걸쳐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유목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본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전문가 협의회 및 서면 질의 참여자에게 제공하였다.

IV. 연구 결과

대학과목선이수제 교과목을 강의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 및 서면 질의를 실시한 결과, 대학과목선이수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1.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에 관한 논의

가. 대학과목선이수제 수강 인원 확보 방안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 신청서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한 대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 기간 동안 51개 신청 대학 중에서 14개의 대학에서만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운영되어, 상당수의 대학에게 폐강되어 운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Y대학교, H대학교, S대학교, P대학교는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었다. 대학과목선 이수제 수강 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별로 자체 홍보와 학생 유치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겨울, S대학교의 UP 수강 학생 수가 증가한 이유는 2007학년도 겨울방학 운영의 문제점을 대학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겨울방학에 홍보가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UP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 본 대학에 합격한 일부 합격생들이 대학 학점을 선이수하기 위하여 UP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올해부터 수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시 합격생만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UP를 수강한 학생 중에서 100명 이상의 학생이 수시 합격생이 아닌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우리대학처럼,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UP 수강을 한 이유를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교의 사례를 보면, 수시합격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에 UP를 수강하도록 권하는 것이 UP 수강 인원 확보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UP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B 교수)

B 교수는 S대학교의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한 학생 수가 증가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본교 입학이 결정된 수시합격생을 참여시키고, 대학과목선 이수제 프로그램을 예비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7년 7-8월 동안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시범운영한 K대학교에서도 예비대학 프로그램으로서,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예비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에, 수강 학생 수가 확보되어 다양한 강좌가 개설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수한 학생들의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입한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당초 취지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S대학교와 달리, M대학은 지역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 대학과목선 이수제 수강 학생 수가 증가하였다. J 교육청은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UP를 활성화하려면 대학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M대학교의 경우에 J교육청의 지원으로 UP가 활성화되었습니다. J교육청이 UP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였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교재비 10만원을 별도로 제공해주었습니다. (E 교수)

E 교수의 지적처럼, 학생 수가 부족하여 대학과목선 이수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교육청과 지역 거점 대학교의 관계자가 협의하여, 대학과목선 이수제 수강 학

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S대학교와 H대학교의 경우에는 통학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대학 기숙사 시설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는데, 각 대학에서 대학과목선이수제 수강 학생을 위하여 대학교 시설을 개방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의 수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을 위하여 대학 자체로 홍보 전략을 수립한 P대학교의 경우에는 인근 대학과 달리 수강 학생 수 부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각 대학별로 수강 학생 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UP이수의 목적이 P대학 진학 후에 학점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타대학에 입학 후에 학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많은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대학이 적절하게 홍보한다면 지방대학의 경우에도 폐강되지 않고 강좌가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F 교수)

F 교수는 대학과목선이수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상위 3%의 이내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 학생들이 향후에 본교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가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P대학교는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참여 대상 학생들에게 대학과목선이수제가 수월성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본교에서 이수한 과목들은 향후 입학한 대학(단, 학점 교류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 한함)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대학과목선이수제 수강 인원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지역교육청과 대학의 연계, 대학의 홍보, 수시합격생의 참여,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학과목선이수제의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강 학생 수가 적정한 수준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것들을 중심으로 대학과목선이수제를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대학과목선이수제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활성화될 것이다.

나.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 기간

대학과목선이수제는 3학점 15주 기준으로 45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명의 교수가 3주간 매일 3시간씩 강의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있었다.

외국은 8주를 운영해도 AP를 운영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는 3주 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수요일에 하루 쉬고, 4주 동안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둘째, 팀티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팀 티칭은 교수의 강의 부담은 적지만,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한 주간 호흡을 맞췄는데, 다시 다른 교수들과 학생들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B 교수)

E대학교 미적분학도 3주 동안 쉬지 않고 강의하였더니, 녹초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수강 학생 뿐 아니라 강의 교수들에게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C 교수)

B 교수와 C 교수는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3주간 운영하는 것보다는 4주간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언급을 하였다. 이와 함께 B 교수는 팀티칭을 언급하였다. 대학과목선 이수제 운영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최소 강의 시간 45시간을 유지한다면, 강의 운영 기간을 1주 더 연장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수들의 강의 부담 해소 및 강의의 질 확보를 위하여 팀티칭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의 기간을 3주에서 4주로 연장하여 운영할 경우에,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학사일정과 겹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

Y대학은 4주 운영하고, 2명이 팀티칭으로 운영하였는데, 운영결과가 좋았습니다. (D 교수)

S대학교에서는 일반화학 강의를 3주 동안 3명이 팀티칭을 하였는데, 운영 결과 교수들과 학생들 모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 모두 각 전공 분야를 심화하여 지도하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A 교수)

다. 표준교육과정의 적절성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각 교과목별로 개발된 표준교육과정에 의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였는데, 표준교육과정의 내용, 수준, 분량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준교육과정의 수준과 분량이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문의 발전 속도가 빠른 일부 교과목의 경우에는 표준교육과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생물은 업데이트가 엄청 빠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다루어주어야 합니다. 현재 2년에 한 번씩 교재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물학은 표준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D 교수)

D 교수는 생물학의 경우 학문의 발전 속도가 타 학문에 비하여 빠르기 때문에 표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만을 가르치게 되면, 생물학에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표준교육과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07년에 개발된 표준교육과정을 수정 및 개정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각 학문의 성격에 따라서 강의 내용을 보충하여 가르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개발되어 있는 표준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도하되, 새롭게 등장한 이론들은 강

의 시간에 추가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라. 참여 학생들의 태도

대학과목선이수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 태도가 소극적인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토의와 발표 수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과목선이수제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발달수준과 흥미를 고려하게 될 때,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활발한 강의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학생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수업 참여도 점수를 반영하니깐, 참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강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C 교수)

생물학에 참여한 학생들은 생물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였으며, 학생들 간의 경쟁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학생들이 UP에 전념하고,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였으며, 과목에 대한 인지도와 수업에 열중하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D 교수)

이상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학과목선이수제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개인차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의 개인차를 극복하고, 수강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강의 담당 교수들은 고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토의식, 발표식 수업 등과 같은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 대학과목선이수제 교과목 II 강좌 개설

대학과목선이수제는 각 교과목별로 개발된 표준교육과정에 의하여 강의를 진행되며, 교과별로 I, II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교과목 구분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들 교과목을 학기별로 I, II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과목별로 I, II의 표준교육과정이 개발되었으나, 수강 학생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II강좌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과목 I을 강의할 때 I과 II의 내용을 종합하여 가르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미적분학 II의 경우 1, 2학년 학생 중에서 미적분학 I을 이수한 학생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미적분학 II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C 교수)

일반화학은 표준교육과정 대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화학 I, II를 구분하여 개설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화학 II를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화학 I에서 I, II의 내용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UP에 참여한 학생들이 연속하여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학기마다 I, II를 동시에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수업을 한 후, 오후에 실험 수업을 하는데, 오전과 오후에 이론과 실험을 동시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A 교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목별로 I, II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이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각 대학에서 기초과목으로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될 경우 대학과목선이수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I과 II를 합치는 것은 학점 인정에 문제가 있으며, 이론과 실험의 학점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도 학점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 대학에서 기초과목을 만들어 주면, 현재 I, II를 통합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A 교수)

E대학에서도 초보적인 수준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 내용을 한 학기에 압축해서 만든 강의를 있습니다. 한 학기용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미적분학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UP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흥미와 소질을 봤을 때, 통합운영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UP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수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심도 있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C 교수)

A 교수와 C 교수의 의견과 대학과목선이수제 교과목 운영 지침을 종합하면, 대학과목선이수제를 운영하는 각 대학에서 교과목 I, II를 개설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서, 대학과목선이수제 교과목 I, II의 개설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S대학은 겨울방학에는 I, 여름방학에는 II를 전략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물리에 진정으로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I, II를 모두 수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 교수)

II강좌를 겨울에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학생들이 여름에 비하여 겨울에 많이 수강하니까요. (A 교수)

바. 대학과목선이수제 불참 대학

한편, 대학과목선이수제를 운영하는 대학이 갖는 이점이 없기 때문에 K대학교는 시범운영과 2008년 1-2월에만 참여하고,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Y대학의 경우도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시범운영부터 2008년 7-8월까지 참여하다가 2009년 1-2월에는 불참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운영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가 상이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Y대학교 관계자에게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미래 성장 동력인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는 것으로서,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본 대학에 입학하느냐와 관계없이 필요한 제도라고 역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저도 무척 답답합니다. 즉 비용 효과에 관한 논의가 Y대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UP 운영의 성과가 무엇이라는 거죠? 수강한 학생이 Y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영재교육이다. 이것이 대학교육의 다변화와 관련이 있더라도 주장하더라도, 대학에서는 이 점이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경쟁대학에서 참여를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참여해야 되는가라는 말도 나옵니다. (D 교수)

D 교수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이 운영이 될 때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은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운영으로 인한 대학의 특질을 따지기 보다는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대학과목선 이수제 학점 인정에 관한 논의

가. 타 대학 학점 인정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학과목선 이수제 학점 인정 협약에 의하여 대학과목선 이수제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이수 결과를 대학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대학학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대학별로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학점 인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점 인정 규정은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공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과목선 이수제 이수 결과의 학점 인정은 대학생들이 타 대학에서 계절 학기를 수강하였을 때 학점을 인정받는 것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이수한 학생들의 학점을 각 대학에서 인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학점 인정에 대하여 강의를 담당할 교수들 간에는 다소의 입장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입학한 대학에서 타 대학에서 이수한 대학과목선 이수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협의회 자료를 보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 기간 동안 본 시행을 운영한 P대학교와 J대학교의 경우에, 대학과목선 이수제 이수 학생이 100%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를 믿을 수 있나요? E대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에 100% 이수한 학생들이 없었으

며, 수강한 학생들 역시 100%이수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수강한 학생들의 학점을 100% 인정하기 보다는 대학 자체적으로 내규를 마련해서, 학점 인정과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 교수)

C 교수는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수강한 학생들의 실력과 태도를 볼 때,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점을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자체적인 정화 장치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B 교수는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학점 인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 규정상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교과목의 학점을 A+, A0, B+, B0, C+, C0, F의 7단계로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이수한 후 학생들이 C0이상의 학점을 부여받으면,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좋은 학점을 받지 못했다면,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이수 결과를 대학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이수한 학생들의 학점을 GPA(졸업평균평점)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과목선 이수 학점이 GPA에 반영되지 않는데,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대학생의 경우에, 대학과목선 이수 학점을 졸업학점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졸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B 교수)

B 교수는 대학과목선 이수제 학점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GPA에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운영을 희망하여 신청을 한 29개 대학 중에서 GPA를 인정하는 대학은 8개 대학에 불과하다. 그러나 학점 인정은 대학 자율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점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C 교수가 지적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H대학교와 S대학교와 같이 자체 시험을 실시한 이후에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생들의 학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타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및 평가방법에 대한 불신으로 볼 수 있다.

대학과목선 이수제 참여한 학생들이 타 대학에서 학점 인정을 받느냐 못받느냐의 문제는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에 대한 신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UP 운영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B 교수)

기존에 타 대학에서 UP를 수강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E대학교에서 열린 미적분학 강의를 교수가 열강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타대학에서 이수한 학생들의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C 교수)

P대학의 경우, 2008년 겨울방학의 이수율이 50% 남짓입니다. P대학교 역시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실력이 형편없거나 이수학생의 태도가 낮은 경우에 F학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강한 학생들 모두에게 절대로 학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F 교수)

B 교수와 C 교수의 지적대로 타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대학 간에 발생하는 교육의 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교과목별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표준교육과정에는 평가 예시 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교과목별 평가 문항의 구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나. 대학과목선 이수제 학점 규정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이수한 학생들의 이수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P/F로 기재된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A+~C0를 P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수정하여 A+~B0를 P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즉, 학생들의 학점은 현행처럼 7단계로 유지하되, Pass의 급간을 4급간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되면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이수 결과를 대학 입학 전형 자료에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잠재능력이 풍부한 학생들이 대학과목선 이수제 교과목을 C0로 이수한 이후에 대학에 입학하여 이 학점을 그대로 인정받는다면, 후속 학습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C급간을 Fail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의 학점 체제를 개선하여 A, B를 받은 학생을 P, C를 받은 학생을 F로 부여한다면, 입학사정관제도가 활성화되었을 때, UP 이수 결과를 간접적으로 입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UP에 관한 취지를 대학교수들이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B 교수)

C는 F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대학 미적분학의 경우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보다 한 단계 높게 학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C를 F로 생각한 이유는 미적분학은 공대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이 정도의 수준으로 미적분학을 이수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UP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A이상의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C 교수)

한편, A 교수와 D 교수는 현행 학점 제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수한 학생들의 실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C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F학점을 부여하면 된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선을 다한 성적이 C0이 될 수 있으므로, C0학점을 F로 처리하는 것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 충족 및 대학과목선 이수제에의 참여 의지에 반하는 처

사라고 피력하였다. 또한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취지가 우수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심화 학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지 대학 전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0학점을 이수학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C를 F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C를 F로 판정한다면, 학생들의 이수율뿐만 아니라 학생 지원 자체가 낮을 수 있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교수)

Y대학은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가급적 A, B 학점의 50% 비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를 받은 학생이 C를 받은 학생들에 비하여 많았습니다. C를 받은 학생들도 열심히 참여한 결과입니다. C를 F로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D 교수)

대학과목선이수제는 수월성 교육의 일환으로 우수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대학 입시와 연계된다면,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존재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UP가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D 교수)

3. 대학과목선이수제 중장기적인 발전과제에 관한 논의

가. 대학과목선이수제 교재 개발

대학과목선이수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과목선이수제가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학마다 각기 다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평가방법으로 인하여 대학별로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의 질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 교재의 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재 각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대학별로 공통 내용을 다루기 위하여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표준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교재가 있다면, 별도의 교재를 개발하지 않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미적분학은 교재 개발과 공동 문항 출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대학교 미적분학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강의 교재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표준교육과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가르쳤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C 교수)

요즘은 번역서가 잘 출판되어 나오기 때문에, 어느 교재를 선택하더라도 표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교재 개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D 교수)

한편, B 교수는 대학과목선 이수제 운영의 통일성과 표준화의 관점에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질적 형평성 측면에서 교재를 개발하고, 그 교재를 이용하여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교재 개발은 향후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고등학교 단계로 확대 시행될 때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사용하는 강의와 달리, UP에서는 강의와 관련하여 강제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고등학교에서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확대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재마다, 또는 교재가 개정되면서, 1학과와 2학기 내용의 가르치는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교육과정에 준한 교재가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B 교수)

나. 대학과목선 이수제 평가 문항 구축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이수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대학의 학칙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받는다. 학생들의 학점 인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평가문항의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평가 문항 구축은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고등학교 단계로 확대될 경우에, 학생들이 대학과목선 이수제 이수 결과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AP, 유럽의 IB제도와 달리 우리나라의 UP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문항 구축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출제의 관리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출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의 관점에서 이것을 학회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공동출제를 하기 위하여 합숙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UP 결과가 입시와 연계될 경우 평가문항 출제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 교수)

공동출제는 추이를 보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평가 문항 예시를 참고하여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D 교수)

B 교수와 D 교수의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과목선 이수제 평가 문항 구축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UP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역시 각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고등학교로 확대될 경우 평가 문항 구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사이버 강좌 도입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사이버 강좌는 특정 지역에서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개설되지 못함으로 인해 우수한 학생이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수강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외 지역 및 소외 계층의 교육권 확보,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방학기간 동안의 집중이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사이버 강좌의 도입에 앞서 이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사이버 강좌는 오프라인 강좌의 보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특히 과거에 실시되었던 양방향 통신의 사이버 강좌 운영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를 도입할 때 신중해야 하며, 교육은 면대면 상호작용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오프라인 강좌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이버 강좌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강좌가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UP의 사이버 강좌는 방송통신대학교 강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Y대학교의 경우에, 강의 동영상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온라인 강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D 교수)

근본적으로 사이버강좌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면대면 접촉,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사이버강좌는 이러한 요소가 없으므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온라인, 시청각보다는 분필과 같은 강의가 더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한 학습보다는 직접 면대면 학습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B 교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지역 및 소외 계층의 학생들을 위해서 사이버강좌가 필요하지만, 사이버강좌를 도입할 때에는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사이버강좌로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이수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들의 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확대 및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대학과목선 이수제 교과목을 강의한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 및 서면질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대학과목선 이수

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과목선이수제 교과목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 수강 학생의 확보 방안, 강의의 운영 방안, 표준교육과정의 적절성, 수강학생의 태도, 교과목 II의 개설, 불참 대학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수강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대학 간의 긴밀한 협조 체제의 구축, 학생 확보를 위한 각 대학의 노력, 수시합격생의 참여, 참여 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운영을 신청한 상당수의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대학과목선이수제 운영의 우수사례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운영은 4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매일 3시간씩 5일간 3주를 운영하는 것은 담당 교수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방학 일정과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여 4주 운영 및 팀티칭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과목선이수제의 표준교육과정은 대체로 잘 작성되어 있지만, 학문의 성장 및 발전 속도가 빠른 교과목의 경우에는 표준교육과정이 부분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대학과목선이수제 교과목을 강의할 때, 표준교육과정의 내용을 준수하되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여 강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참여 학생들의 수강 태도 역시 교과목별, 대학별로 다양하였다. 대학과목선이수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등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수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과목선이수제 교과목은 I, II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수강학생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과목 II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기에 따라서 I, II의 강좌 개설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과목선이수제의 비용-효과 차원을 고려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대학이 대학과목선이수제에 참여하기 위한 의식 전환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대학과목선이수제의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타 대학 학점의 인정과 학점 체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타 대학 학점의 인정 여부는 대학의 학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타 대학 학점의 인정과 관련하여 타 대학에서 이수한 결과를 각 대학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학점 체제의 P와 F의 기준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의 7단계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 대학별로 학생들의 학점을 공정하고 신뢰롭게 관리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중장기적 발전과제로서 교재 개발, 평가문항의 구축, 사이버 강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교재 개발과 평가문항, 사이버 강좌의 구축과

관련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고등학교에서 확대 운영되거나, 미국과 같이 AP 시험에 의하여 학점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목선 이수제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 방법, 운영 절차에 대한 대학 교수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협의회 및 서면 질의의 결과,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처음 강의하는 교수들은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확대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담당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대학과목선 이수제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며, 본 대학 이외에 타 대학에서 학점을 어떻게 인정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대학, 교육과학기술부(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익수, 홍후조, 성열관(2006). 우수 고교생의 대학진학준비 교육과정으로서의 AP와 IB의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16(4), 207-235.
- 김경선, 정일환(2003).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 분석 - 관련집단의 인식정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3), 387-410.
- 박선미(2007).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소개 및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 **대학교육**, 151, 52-56.
- 박선미, 김훈, 김경대, 이태상, 박일수(2008). **대학과목선 이수제 운영체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박선미, 김경대, 김훈, 이태상, 박일수(2009). **대학과목선 이수제 운영체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본 시행 1기-3기를 중심으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서영인(2008).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의 타당성 검토 기준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6(1), 235-258.
- 신차균(2007). 고교 평준화 정책 논쟁에 관한 철학적 분석. **교육논총**, 27(1), 1-32.
- 최재철(2007). 대학과목선 이수제 관한 연구: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스페인어문학**, 42, 243-258.
- 한혜정(2008). 수월성의 교육적 의미. **교육학연구**, 46(4), 187-206.

• 논문 접수 : 2010년 1월 1일 / 수정본 접수 : 2010년 2월 9일 / 게재 승인 : 2010년 2월 22일

ABSTRACT

An Explorativ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level Program

Il-Soo Park(Lectur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n Mie Park(Research Professor, KAIST)

Kyoungdae Kim(Research Professor, KAIST)

Hum Kim(Research Professor, KAIST)

Tae-Sang Lee(Professor, Sa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level Program(UP). In order to attain the above purpose, UP expert meeting and questionnaire have been conducted to professors who have been teaching UP calculus, UP general physics, UP general chemistry, and UP general biolog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perational issues and improvements of UP have been discussed. (1) For the development of UP, the number of UP students should be adequately secured. (2) UP instructors need to use various teaching methods and team teaching. (3) UP instructors should implement UP standard curriculum in terms of fidelity, modifying it properly. (4) University and college instructors need to recognize that UP is important part of the excellent of education.

Second, UP credit has been discussed. (1) UP credit is accepted by the regulations of each university. (2) UP credit system maintains the current system.

Thir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UP has been discussed. UP textbook development, build of UP test items, and UP cyber lectures are not needed right now.

Most of all, the college instructors and staff responsible for running UP need to change the way they understand it. If these things were complemented, UP could be established successfully and be activated.

Key words : University-level Program, excellent of education, UP, AP